

## 선인(仙人)단군을 통한 홍익인간 함의 소고 -실천적 인간상에 대하여-

박진규\*

### < 목 차 >

1. 건국사화의 홍익인간과 신선사상
2. 선인단군의 정체성 논의
3. 선인단군의 홍익인간 인간상 함의
4. 맺음말

**【요약문】** 건국사화에서 단군이 고조선 치세 후에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군 본연의 정체성을 ‘仙人’으로 규정하는 결말이다. 仙人단군의 정체성은 고유한 신선사상에 기반하는 수양전통과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실천’ 문화를 내포한다. 역사적으로 선인단군의 실천적 정체성은 면면히 전승되었다. 선인단군은 수양실천에서 한국선도 선택의 조종이었고, 홍익인간의 실천이념은 고대 광명치세·이도여치·접화군생 등 홍익치세의 사상으로 전해졌다. 후대에 풍류도·조의선인 등 심신수양 호국실천의 인재양성제도, 화백·제가평의 등 홍익의견수렴제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하늘과 하나되는 제천의례, 민간에서는 두레 등 홍익풍속들로 지속되었다. 조선말기 동학이나 근대 민족종교 등에 나타난 실천사상 역시 선인단군의 홍익인간 실천·수양의 맥을 잇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은 오늘날 건국이념·교육이념으로 정립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회의적이며 특히 교육제도에서 홍익인간이념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홍익인간 이념은 ‘실천’ 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선인단군의 정체성을 교육적 인간상의 정립에 반영하여 ‘선인단군의 사상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삶의 가치관을 홍익인간에 두고, 스스로 심신을 다스릴 수 있으며 각 단위에서 홍익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고유의 수양전통과 홍익인간 실천문화를 담은 실천적 인간상의 정립은 미래사회에서 홍익인간 이념이 개인에게 기본정서가 되고 사회구성원 간에는 소통문화가 되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중심 가치로 부활하는 토양이 될 것이다.

**【주제어】** 홍익인간, 선인단군(仙人檀君), 한국선도(韓國仙道), 교육적 인간상, 삼국유사, 제왕운기

\* 단군이야기연구소, 국학박사

## 1. 건국사화의 홍익인간과 신선사상

홍익인간 이념은 국조 단군의 건국사화에서 유래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환인이 지상의 홍익인간할 만한 곳을 찾아 환웅에게 천부인을 계승하여 내려보냈다. 무리 3000을 이끌고 지상세계에 내려온 환웅천왕은 태백산 신단수아래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세상의 360여사를 조절하며 재세이화를 실현하였다. 지상계의 호·웅은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였다. 이에 환웅은 호·웅이 환골탈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동굴에서 실행할 수양(修養)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이를 실행한 웅은 인간의 모습을 얻어 웅녀가 되었다. 변모한 웅녀는 늘 신단수아래에서 잉태하기를 기원하였고 이에 환웅이 짐짓 웅녀와 혼인을 하여 단군왕검이 탄생하였다. 단군왕검은 조선을 세우고 1,500여년을 다스리다가 1,908세에 아사달에 은거하여 산신(山神)이 되었다.<sup>1)</sup>

『삼국유사』의 건국사화에서 환인·환웅천왕·단군왕검의 계보는 한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명부를 명확히 그렸다. 환인·환웅이 지상과 인연을 맺은 목적이나 그들의 행적은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천계의 환웅이 지계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지배를 위한 대립이라든가 반대세력과의 투쟁과정이 보이지 않고 지손족(熊·虎)에게 신계의 백성이 되도록 교화를 베풀었을 뿐이다. 건국사화는 환인·환웅이라는 천계와 웅·호라는 지계, 그리고 단군왕검이라는 인계가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을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이해하는 한국 고유의 삼원일체 세계관을 담고 있다.<sup>2)</sup>

신화라는 관점에서도 건국사화의 홍익인간 사상은 서양신화의 일반적인 사상구조와 현저히 구별된다. 홍익인간이념이 천지인합일의 상생·조화적 사고에 기초하

1) 『三國遺事』「紀異卷第一 古朝鮮條」,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於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遷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2) 박진규, 「환웅神시를 통한 “한”의 고찰」, 2015, 91-98쪽 참조.

고 있는 반면, 서양신화에서는 인간과 신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신들 간에는 혼돈, 갈등, 대립의 구조에서 경쟁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등 단군 건국사화에서 보이는 사상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군의 건국사화에는 신(환인·환웅·단군)의 역할이 일관되게 재세이화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세상을 이상사회로 구현하려는 현세중심의 존재이다. 홍익인간사상은 중국의 반고신화나 일본의 창세신화에서 보이지 않는 한국건국신화의 고유성이다.<sup>3)</sup> 환웅은 환인으로 부터 천부인을 계승함으로써 하늘의 법통을 내려받고 지상에 신시를 세워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천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유래로 한국인을 천손족이라 한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국고대의 사회가 권력이나 무력 대신에 하늘처럼 만민을 널리 고르게 사랑하는 통치를 행했음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이다. 한국고대인에게 홍익사상은 국가차원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구현해야 할 그리고 개인사에서도 마땅히 실천할 가치기준으로 품어온 염원이었다. 이 염원이 오랜 기간 단군신화로 결합하여 전해 내려오다가 고려시대의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sup>4)</sup>

천손족은 인간이면서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사람이 되고자 추구한다. 한국고대의 선인 또는 신선은 천손족의 지향을 실현했던 하늘과 인간의 중간자이고 마침내 하늘과 합일하는 존재이다. 단군왕검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존재의 의미이다. 단군 건국사화는 환인·환웅·단군의 존재의미상 한국고유의 신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선사상은 자기단련의 수양을 동반한다. 『조선도교사』의 저자 이능화(1869~1943)는 ‘단군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환인을 받들어 모시는 것(神敎)이고, 다른 하나는 상고의 선인 광성자를 이어받은 것(仙敎)이 그것’이라고 하였다.<sup>5)</sup> 단군숭앙의 전통에는 신앙적 측면이외에 신선사상에 기반한 수행의 선택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단군이 신선사상에 동반되는 수양문화의 핵심적 인물이라는 말이다. 혹자는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양전통에 대해 ‘한국고유의 사상전통속에는 자력적 수련전통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 수련전통은 고래의 선풍(仙風), 고대 신선사상에 근간한 것으로 주로 지배엘리트에게 전승되었다.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도는 이를 구체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상무적인 기풍과 함께 수련공동체로서 모습을 지니고 있었

3) 선우미정,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유교철학적 고찰」, 2012, 192-193쪽 참조.

4) 정영훈,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1999, 6-7쪽 참조.

5) 최준식, 「이능화의 『조선도교사』」, 1993, 93쪽 참조.

다. 6) 고유한 수련전통이 고대에는 최치원이 난랑비 서문의 언급대로 고대 선사(仙史)에서 전해온 현묘한 도에 뿌리를 둔 것이었으나 후대에 중국의 도교가 전래하면서 은일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내단 수련도교로 변천되었다.

건국사화의 주인공인 환인·환웅·단군은 한국 선도(仙道)의 기원문제에서 주요한 선도사적 지위를 차지해왔다. 『청학집(靑鶴集)』(조여적, 조선중기)에는 환인을 동방선파의 조종(祖宗)이라 하였고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은 환인의 뜻을 이어 백성을 교화하였으며 후에 신선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단군의 도를 아사달산의 문박이 잘 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환인·환웅·단군을 한국 선도의 조종으로 전하였다. 홍만종(조선 인조대)의 『해동이적(海東異蹟)』은 아사의 책들을 수집·총괄하여 우리나라 선가의 인물들을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32편의 선인전을 엮어 집필하였는데 단군선인을 필두로 함으로써 선맥의 시조로 삼았다. 7) 선도사서 『규원사화(揆園史話)』(북애노인, 조선 숙종대)는 환인·환웅·단군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신(主神) 환인은 수많은 신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모든 일들을 엄하고 공정하게 다스려서 잘못이 없도록 하였다. 환인은 환웅천왕에게 천부인을 계승하고 지상에 내려보내 인간세상에서 하늘의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토록 후손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환웅(神市氏)에 대해 인간세상에 신의 가르침을 세운 동방인류의 조상이라 하였다. 환웅을 타고난 떳떳한 성품이 있어 백성의 일들을 두루 보살폈던 단군이전의 성인이라고 하였다. 환웅은 공들인 일들이 모두 완성되고 난 후 사람과 사물이 즐겁게 되는 것을 보고는 말년에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서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였다. 단군은 환웅을 이어받아 조선을 세우고 90여년을 치세한 후에 2세 단군 부루에게 임금을 물려주었다. 단군왕검이 물려주며 이르기를 하늘의 도가 밝히 네 마음에 내려와 있으니 오직 네 마음을 잡고 모든 백성을 사랑 하는 일에 지성을 다하라 하면서 아사달에 들어가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니 210세에 신향(神鄉)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8) 환웅 및 단군은 치세 후에 신선이 되었다. 환웅·단군이 홍익인간을 실현한 선인이었다는 것을 실존역사로 기술한 『규원사화』는 위서논쟁에 물려있는 사서이다. 일각에서는 『규원사화』가 대종

6)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2008, 142-147쪽 참조.

7) 홍만종 저, 이석호 옮김, 『해동이적』, 1986, 9-21쪽.

8) 북애자 저, 고동영 옮김, 『규원사화』, 2005, 16-19, 54-55, 94-95, 167쪽 참조.

교계 자료의 영향을 받은 일제강점기의 위작으로 보기도 하고<sup>9)</sup>, 다른 시각에서는 197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심의에서 조선중기본임을 인증받았다는 점과 단군 47대의 왕호와 1205년간의 전조선의 연대를 비교적 상세히 밝혀놓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서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sup>10)</sup> 정사에서 비록 환인·환웅·단군의 치적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는 않지만 환인·환웅·단군이 한민족의 시원이자 시조라는 인식은 이미 역사적으로 굳게 정착되어 있다. 서지논란을 떠나서 조선중기에 분명히 존재했던 『규원사화』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본이 다소간 첨삭되어 전한 판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담긴 세계관과 사상관념만큼은 다분히 참조할 만하다. 『규원사화』나 『삼국유사』에서 공히 전하는 바 환인은 천신이고 환웅은 인간세상에 내려온 신인이었으며 인간 단군은 후에 산신, 즉 신선 또는 선인이 되었다. 이렇듯 주인공들의 정체성으로 보면 한국의 건국사화는 신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군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신선사상과 매우 밀접하다. 하지만 선인으로서의 단군담론은 주로 무속이나 선가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을 뿐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신선사상은 인간이 선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지향과정에서의 구체적 실체는 자기단련 또는 수양이다. 자기를 단련하고 수양하는 ‘실천’을 통하여 선전에 실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양을 행하여 선전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 선인단군의 정체성 속에는 자연스레 수양실천의 이미지를 동반한다. 『삼국유사』에서 국조단군의 탄생과정과 일생을 보면 자기수양의 전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양의 의미가 신체적 단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조절력을 터득하는 것이 참된 수양이다. 단군왕검의 아버지 환웅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간세상에서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펼쳤다. 자신이 품은 뜻을 늘 지키고 실천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수양의 실천인 것이다. 단군의 어머니 웅녀는 환웅이 내려준 동굴의 수행을 잘 행하여 자신의 심신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환골탈태하여 신시의 인간이 되었다. 웅녀와 신인 환웅이 결합하여 단군왕검이 태어났으니, 단군왕검은 천신의 자손이자 자기수양으로 지손의 한계를 넘은 수행자의 자손이다. 단군왕검은 마땅히 아버지 환웅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이념을 계승하여 조선을 건국하였고 치세 임무를 마친 후에는 아

9) 김성환,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2014, 324-325쪽.

10) 임채우, 「선도사서 『규원사화』 해체-위작설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2009, 144-150쪽 참조.

사달의 산신이 되어 은거하였다. 단군왕검이 말년에 산신, 즉 신선이 되었다는 것은 단군 본연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건국사화에서 단군정체성의 본질을 선인단군으로 규정하는 결말이다.

산신의 한국 전래의 의미는 지연(地緣)공동체를 수호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역할을 해온 존재이다. 지연공동체의 범위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과제에 따라 작게는 마을공동체로부터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까지 나아가 지구공동체까지를 지연적 공동체로 확대할 수 있다.<sup>11)</sup> 그렇게 본다면 단군왕검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치세를 마치고도 조선을 수호하려는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지속적인 실천이었을 것이다. 양위 이후에 산신이란 군장이라는 현실적 지위를 뛰어넘는 최선의 위상이다. 건국사화에서 단군왕검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신선이 되어 이상향으로 되돌아 간 도인(道人)이자 수행자이다. '선인(仙人)단군'이 치세동안에 행했을 수양실천, 그리고 산신이 되어 은거하며 행한 수양의 지향은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실현과 지속이었을 것이다.

선인단군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전승되어 온 것에 비하여 선인단군에 관한 인식과 그에 관한 담론은 침잠해있다. 또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교육이념의 해석논의에서 신선사상을 기초로 한 단군담론 역시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단군이 신선이었는가 아닌가에 치우치는 실속없는 논의가 아니라 선인단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홍익인간이념의 유용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선인단군으로부터 홍익인간이념을 실천하는 인간상이라는 상징을 포착하여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제시해야 할 교육적 인간상에 유용할 콘텐츠를 제시할 것이다. 글의 전개과정에서 논리가 비약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족함에 대해 연구자분들께 고개 숙여 지도편달을 청할 뿐이다.

## 2. 선인단군의 정체성 논의

단군을 '선인'으로 기록한 것으로는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 등의 기사에서 보인다. 정사에서 선인단군이라는 칭호로 전한 것은 신선이라는 단군정체성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왔음을

11) 강영경, 「한국 고대 산신신앙에 나타난 이상인간형」, 2001, 204쪽.

명확하게 한다. 살펴보면 『삼국사기』 제17권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편 21년(247년) 기사에서 “21년 봄 2월 왕은 환도성이 난리를 겪어 다시 도읍할 수 없으므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기었다. 평양이란 곳은 본시 선인 왕검의 터였다. 후자는 왕의 도읍을 왕검이라 한다.”<sup>12)</sup>고 하였다. 동천왕이 천도한 평양성은 바로 단군조선의 첫 도읍지였던 평양성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단군을 가리켜 선인왕검이라 한 것이다. 『제왕운기』 「한사군과 열국기」에는 고대의 70여개 국가가 모두 단군조선의 계승이라고 하면서 그중 큰 나라로는 처음에 세워진 부여와 비류국이었던 대목이 있다. 글에서 이승휴가 비류국에 대해 주석한 내용을 보면 「동명본기」를 출처로 밝히면서 ‘비류왕 송양이 말하기를 자신은 선인의 후예로서 대대로 왕을 하여왔는데 지금 그대는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속국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비류왕 송양과 주몽과의 대화내용을 인용하였다. 주석에서 이승휴는 송양 자신이 선인의 후손이라 한 것은 단군의 후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하였다.<sup>13)</sup>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 권3 「동명왕편」에서도 현재 전하지 않는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인용해 비류왕 송양이 선인의 후예라 기록한 내용이 있다.<sup>14)</sup>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단군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를 포함하여 동시대의 저작들이 단군을 신선이 된 건국시조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서 인용한 선인은 선인단군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승휴가 송양이 말한 선인이 단군선인이라 한 추측은 당시 일반적인 견해였다. 1325년에 쓰여진 고려 후기 문신 평양조씨 조연수의 묘지명에는 “평양의 선조는 선인왕검이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이 남아있으니 당당한 사공이 그이시라. 평양군자는 삼한보다 앞서 계셨으며 천년이 지나도록 장수하여 신선이 되었네.”<sup>15)</sup>라 쓰였다. 이

12)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年條], “二十一年春二月王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築平壤城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삼국사기참조([http://db.history.go.kr/item/oldBookViewer.do?levelId=sg\\_017\\_0020&page=5](http://db.history.go.kr/item/oldBookViewer.do?levelId=sg_017_0020&page=5)))

13) 『帝王韻紀』 下卷 [漢四郡及列國紀]: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 日淺, 爲我附庸, 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제왕운기 권하 참조([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mujw\\_002\\_0060](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mujw_002_0060))) 번역은 김경수 옮김, 『제왕운기』, 1999, 144쪽.

1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DB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 [東明王篇] 참조.

15) 「趙延壽墓誌銘」: “平壤之先, 仙人王儉, 至今遺民, 堂堂司空, 平壤君子, 在三韓前, 壽過一千, 胡考且仙”(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금석문검색 참조([http://portal.nrih.go.kr/kor/ksmaRemainUsrView.do?menuIdx=584&ksm\\_idx=3448&ssType=Y](http://portal.nrih.go.kr/kor/ksmaRemainUsrView.do?menuIdx=584&ksm_idx=3448&ssType=Y)))

글에서 삼한 이전에 계셨던 분, 천년이 넘게 장수를 누리다가 신선이 되었다는 분은 국조 단군왕검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듯 고려이전의 사서들에서 국조단군을 ‘선인’으로 기록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정사기록에서 단군을 선인왕검이라 칭한 것은 고대에 국조단군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선인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대한국에서 선인의 지위는 최고군장이라는 위상보다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었다. 정사에서 국조단군을 선인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도의 전통이 지배계층에서 제도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폄하되지 않고 전승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요즈음의 대중인식은 단군을 전설속의 주인공이나 무속의 숭배대상이라는 정도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아 신선으로서의 단군인식은 신비로운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선인단군의 정체성 논의는 선도의 영역 이외에서는 거의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과거에 농후했던 선인단군의 문화적·제도적 흔적을 되짚어 보는 것은 단군담론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선인단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하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에 대해 묘사하기를 홍익인간이라는 천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리고 있다. 이웃 중국의 기록에서 전하기를 한민족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였다. 또 하늘을 지극히 따르고 사람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이들이라 하였다. 우리민족은 대인들이며 풍속이 어질고 그로인해 장수하는 불사군자의 나라라 묘사하였다.<sup>16)</sup> 『제왕운기』에는 단군이 세운 조선을 요동의 별천지이며 예의바른 국가라 기록하였다.<sup>17)</sup> 이렇듯 군자국으로 칭해져 온 것은 한민족이 시작된 이래 홍익인간의 이상이 사회 깊숙이 내재해왔고 홍익의 풍토가 유지되어 왔다는 반증이다. 홍익인간이념이 환인천제가 내려준 수직적 종지에 그쳐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민족에게는 신선사상을 기

16) 『山海經』「海外東經」에 한반도 지역을 설명하면서 “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食獸，使二大虎，其人好讓不爭，有薰華草，朝生夕死。(군자국은 그 북쪽에 있다. 복장, 모자, 허리띠를 착용하고 검을 한다. 짐승을 잡아먹으며 두 마리의 큰 호랑이를 곁에 두어 부린다. 그 사람들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죽는다.)”하였다.

『海內經』에는 단군조선사람에 대해 이르기를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天壽其人水居，俚人愛之。(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 한다. 천도(天道)가 있으며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산다.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고 사랑한다.)”고 하였다.

『說文解字』「夷」에 우리나라를 설명하면서 “夷，東方之人也。從大從弓，惟東夷從大人也。夷俗仁者壽有君子不死之國。…”(『夷』란 동방의 사람이다. 대의를 좇으며 활을 잘 쏜다. 오직 동이만이 대의를 따르는 대인들이다. 동이의 풍속은 어질다. 어진 사람은 장수하는 법이니 그러므로 죽지 않는 군자들의 나라가 있나니 …)라 하였다.

17) 이승휴 저, 김경수 옮김, 『제왕운기』, 1999, 134-135쪽 참조.

반으로 수양을 겸비한 실천문화가 간직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 단군이 궁극에 신선이 된 것이나 웅녀가 환웅 신시의 백성이 되기까지 자기단련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된 일련의 수양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수양은 홍익실천문화를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

건국사화에서 보듯 한국고대의 신선사상은 인간과 신의 분리의식 대신에 인간 교화, 신들의 실천, 신과 인의 합일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신선사상의 대표국가인 중국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사상전통이다. 중국도교의 경우 인간이 신선방술을 통해서 불사의 생명향유를 추구하고 신과 같은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함으로써 낙원화를 지향한다.<sup>18)</sup> 지극히 개인적인 성취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세상과는 분리적인 초월적 신선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본질에 충실하여 중국의 신선사상은 불사장생, 은일, 승천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발달해왔다. 이와 달리 한국의 선도는 사상적 특징에서 중국의 신선사상과는 차별적으로 전승되었다. 한국의 선도는 중국의 그것이 전래하기 이전부터 별도로 자생한 고유전통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sup>19)</sup> 단군사화의 신선사상은 당연히 한국고대의 사상전통에 기반한 것이고 홍익인간 재세이화 역시 고유의 실천전통이다.

홍익인간이념의 실천역사는 면면히 이어졌다. 고대에는 선인단군의 홍익인간이념 그대로 전승되었는데,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광명이세(光明理世),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문의 이도여치(以道與治), 최치원이 말한 풍류도의 접화군생(接化群生) 사상 등이다.<sup>20)</sup> 제도적으로는 지도층에서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한 여러 가지 실천제도가 마련되었다. 예컨대 고대의 신선도를 재현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했던 청년 심신수련공동체인 신라 풍류도·고구려 조의선인이 있었다. 하늘과 조상께 제의를 올리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임금 및 전 계층의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제천의례가 있다. 고구려 동맹·부여 영고·동예 무천 등의 제천의례는 하늘과 사람간의 하나됨의 잔치이자 홍익이념의 실현문화 행사였다. 후에 신라 연등회·고려 팔관회로 맥이 이어졌다. 국가 의결제도인 신라 화백, 백제의 제가평의, 고구려의 군공회의와 고려 및 조선의 성상합의제도 역시 홍익인간 이상에 근접하

18) 도광순, 「중국고대의 신선사상」, 1992, 23쪽.

19) 이강오, 「한국 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노장생」, 1987, 172쪽; 도광순, 「한국사상과 신선사상」, 1991 참조. 도광순은 한국사상의 고유성에 대한 실체로서 10여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국 신선사상의 독자성과 기원설을 설명하였다.

20)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과 한국문화」, 2009, 110쪽.

려는 실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민간에서는 홍익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민속문화가 전승되어왔다. 예를 들면 노동품앗이 두레전통, 신시의 재세이화를 기리고자 지역공동체의 수호신이 되었던 마을의 당나무 전통이나 부신목 전통,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꾀던 구도를 재현하는 강신(降神) 내림굿의 전통, 고대 천신신앙의 천인합일 세계관을 보여주는 솟대문화, 대동(大同) 줄당기기 문화, 여성주체의 신명풀이인 강강술래, 농민과 지주가 한바탕 어우러지는 한가위 소놀이, 만신을 포용하는 별신굿, 돌·생일·혼인·환갑·초상 등 인생사에 잔치를 벌여 나이와 남녀신분을 막론하고 과객까지도 베풀던 이바지문화 등이 있다.<sup>21)</sup>

조선시대 이후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밀려 홍익인간이념과 선인단군의 위상이 급격히 퇴화하고 민속, 무속으로 잔존하게 되었다. 그나마 조정의 예악에서 명에 사대의 예를 지키면서도 단군사(檀君祀)나 단군신위에 대한 존송논의를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기자에 앞서 단군이 최초로 나라를 세운 선인임을 잊지 않고 이어갔다.<sup>22)</sup> 조선말기 발흥한 민중봉기나 민족종교들은 잃어버린 홍익인간의 전통에 대한 부활운동이었다.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민중의 열망은 다름 아닌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실현이다. 동학의 하를 사상, 원불교의 보은사상, 증산교의 해월사상 등의 뿌리는 홍익인간 이념에 기반한 수양 및 실천을 원류로 한다.<sup>23)</sup>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주의적 사조에서 국조단군의 위상이 급격히 부상하였고 더불어 선인단군에 관한 인식도 함께 부각되었다. 박은식과 신채호를 비롯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 민족주의 사학계의 주체의식이 이를 견인하였다. 신채호는 「동국고대선교고(東國古代仙敎考)」에서 『기년아람(紀年兒覽)』에 이르기를 고대에는 단군을 천선(天仙)이라 불리었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환인·환웅·단군을 삼신(三神) 또는 삼성(三聖)이라 숭모하고 선교(仙敎)창립의 조상이라 하였다.<sup>24)</sup> ‘삼성(三聖)’에서 성(聖)은 큰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자 지극한 덕을 실천

21) 임재해는 본문에서 열거한 다양한 민속문화들이 홍익인간의 실현이라면서 민속문화속에 갈무리된 홍익정신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임재해, 「홍익인간 이념의 역사적 지속과 민속문화의 전통」, 2014, 296-327쪽)

22) 이민홍, 「민족신화와 민족예악-국조단군을 중심으로」, 1998, 115-138쪽 참조.

23) 김현우·이경원, 「민족종교에 나타난 한국정신문화의 원류」, 2017, 263-275쪽 참조.

24) 「東國古代仙敎考」: 『대한매일신보』, 1910. 3. 11.

한 성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단군을 환인·환웅과 함께 삼성으로 존송한 것은 선인의 지극한 수양경지를 전제한 것으로 선인단군의 정체성을 드높인 것이다.

민족종교 중 대종교는 직접적으로 선인단군을 계승하였다. 대종교도들은 단군 숭배와 함께 수행실천을 겸하였는데 선인단군의 정체성이 상당히 구체화된 것이었다. 교주 홍암나철은 단군의 가르침을 교지로 삼고 고대 신인합일의 수양에 주목하였다. 환웅이 전했다는 『삼일신고』의 수행론으로부터 대종교 교리와 수행체계를 정립하여 지극한 수행실천으로 스스로의 신성을 밝힐 수 있다는 원리를 세웠다.<sup>25)</sup> 일제강점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에 몸담았던 것을 보면 독립운동을 홍익인간 실천이라는 측면의 대종교 수행이었던 것이다.

선인단군의 정체성에 담긴 수양과 실천은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발흥됨으로 민족의 기원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신선도를 닦는 선인이 자기수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잃게 되고, 홍익인간 이념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개념일 뿐이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실천’ 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 고래로 이어져온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발흥은 선인단군의 ‘실천적’ 정체성이 남긴 역사적 산물이다.

### 3. 선인단군의 홍익인간 인간상 함의

#### 1) 홍익인간의 인간상 제고

건국사화의 홍익인간이념이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어왔고 사상적 역학관계에 의해 점차 퇴화의 국면에 처해졌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홍익인간이념이 공식적으로 가장 쇠멸해가고 있었다. 홍익인간이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화된 것은 1941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홍익인간이념을 민족의 최고 공리로 선포함으로써 건국이념으로 정립되었다.<sup>26)</sup> 1946년 3월에는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25) 안병로, 「단군한배검(檀君大皇祖)사상에서 드러난 나철의 수행관」, 2006, 177, 181-182쪽 참조.

26)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강 2항에서 “선민의 명명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이라 하였다. (조소양,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1978, 206쪽)

채택됨으로써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이상으로 부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이념·교육이념으로 국조단군의 홍익인간사상을 천명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군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홍익인간의 의미를 조명하는 담론으로 전개되었다. 단군 관련 실존자료가 희소한 여건 속에서 구체적인 단군콘텐츠를 조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사상을 현대적으로 분석, 수용함으로써 제 분야를 계도하려는 경향이 단군담론의 대표적인 흐름이 되었다. 홍익인간이념에 대한 해석과 함의 연구가 도출해내는 내용이 단군의 위상과 정체성을 대체하였다.

홍익인간이념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경향은 홍익인간이 건국이념·교육이념으로 공식화되었지만 정작 실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추상적인 이상에 머물러있다는 반성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특히 인간상의 정립과 연관이 있는 교육이념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영훈은 “홍익인간은 그저 벽에만 걸어두고 감상하는 장식품에 불과하였고 교육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이념이 아니었다. 교육과정 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교육의 파행이 마치 교육이념이 잘못 설정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바꾸자는 주장이 계속되었다”고 교육이념의 근황을 설명하였다.<sup>27)</sup> 권성아는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식은 한국정치사의 시류에 따라 변화되었고 인간상의 정립에 대한 구체적 명시에 있어서도 정치적·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향성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이념이 명목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사상으로 승화되고 교육현실에서 구체화하여 홍익의 이상이 한민족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박창언 등은 현재 홍익인간 이념하의 교육적 인간상을 규정하는 하위요소가 서구식 예를 도입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족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미약했음을 비판하였다.<sup>29)</sup>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고유의 민족정체성을 인재육성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국가차원에서 그에 적합한 인간상을 육성하려는 의지이다. 하지만 홍익인간의 인간상에 대해 명쾌한 모델상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정체

27)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과 한국문화」, 2009, 111쪽.

28) 권성아, 「홍익인간의 이상에서 본 한국교육」, 2004, 41-62쪽 참조.

29) 박창언·박상욱·유티팅·리광, 「홍익인간 교육이념 재해석을 위한 논점 탐색Ⅱ」, 2015, 185쪽.

성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교육법 제정초기에는 교육의 일반목표 수준에서 간접적인 차원의 소양덕목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의 제정부터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강한 사람·자주적인 사람·창조적인 사람·도덕적인 사람”이라 하였다. 이후에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재정하였다.<sup>30)</sup>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을 보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가 창의력 배양,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개척능력의 강화 등 잘 준비된 사회인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홍익인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문제, 홍익인간이념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홍익실천의 기초로서 자기조절력을 갖추는 자기수양의 노력 등 고대 한국의 전통문화가 갖는 정체성의 함양은 구체화되지도 강조되지도 못하였다. 고대한국의 홍익인간 이념이 인류보편적인 가치라고 극찬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홍익인간 인간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개개인의 소양에서 홍익의 가치가 멀어질수록 현 사회에서 홍익인간의 문화를 재생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 주인공을 육성하도록 교육적 인간상의 정립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인단군이 내포하는 실천적 정체성으로부터 홍익인간의 실현에 기여하는 인간상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인단군의 실천적 인간상 함의

‘선인’은 단군시대로부터 고구려와 신라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 이념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지칭하던 옛말이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따르면 상고에는 화랑을 선비(仙의 무리, 선배)라고 칭했는데 선비는 고구려의 선인과 같은 의미이다. 고구려의 민간교육기관 경당에서는 출중한 선배를 스승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학문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교화하고, 산수를 다니면서 탐험하였고, 성곽을 쌓고 도로를 닦는 등 국가와 사회의 일에 헌신한 실천가였다. 신인·

30) 박창언·박상욱,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2014, 185쪽 <표1> 참조.

선인·선배(仙의 무리)·스승은 모두 고대의 홍익인간정신을 실천하는 지도자를 지칭하였다. ‘선인-선인-선배(仙의 무리)-스승’으로 변천되었지만 동의어들이다.<sup>31)</sup> 선비(선의 무리)인 스승은 스스로 심신을 수양하고 대중을 일깨웠으며 사회참여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로 상고시대 선인의 정체성을 계승한 흔적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에게도 선인단군의 실천적 인간상을 쫓은 자취가 남아있다. 조선시대 선비라면 단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중국의 사농공상 개념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 선의 무리·선배라는 우리말이 스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면서 변질된 말이다.<sup>32)</sup> 퇴계는 선비란 세속에 구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고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사욕을 경계하고 공심을 지키라는 말인데 스스로 심신수양을 겸비해야만 마땅히 선비의 인간상에 부합할 것이다. 혹자는 퇴계의 선비관을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개국신명정신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였다. 퇴계는 기자와 홍범구주를 받들어 우리나라 역사의 이상적인 인물과 이상실현의 예로 숭앙했지만, 단군을 개국신명(開國神明)이라 칭하여 기자보다 먼저 고대조선의 시조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퇴계전서』에서 자주 언급한 ‘신명(神明)’은 국조단군 및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이다.<sup>33)</sup> 퇴계는 중국사신과의 대화중에서 ‘기자가 홍범구주·팔조의 교화를 펼 때에 어진이의 신명이 응하였다’는 언급이 있는데,<sup>34)</sup> 어진이의 신명이란 기자 이전에 이미 뿌리내려 있던 단군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퇴계는 서원을 가리켜 어진이를 높이는 곳이라 표현했는데, 선비가 서원에 들어와 익히는 것을 영주산에 오른 것에 비유하면서 영예롭다고 표현하였다.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상 중 하나인 영산(靈山)으로 신선사상과 연결된다. 일천한 필자가 분석하기에 주제넘지만 퇴계의 선비관에서 선인단군의 수양 및 홍익의 실천전통을 담고 있다는 교차점을 느낀다. 중국 유학을 신봉하는 조선시대에 토착적 요소로서 고대 선인의 수양과 실천적 면모가 맥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31) 권성아, 「홍익인간의 이상에서 본 한국교육」, 2004, 38-39쪽에서 재인용.

32)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한국인의 문화사적 DNA』, 2010, 222-223쪽 참조.

33) 오지환, 「퇴계의 선비관」, 2016 참조.

34)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도 공맹의 심학을 아는 이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퇴계는 “우리 동방은 기자가 봉합을 받고 온 뒤로 구주로 가르침을 베풀고 팔조로 다스려서 어진 이의 교화가 자연히 응하였으니 선비 중에 심학을 터득하여 구주의 이수(理數)를 밝혀 세상에 저명한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최치원을 비롯하여 서경덕까지 열여섯의 선비들을 거명해 소개하였다. 최치원의 한국 선도사의 주요 선맥 중 한 인물이다. (이황, 『퇴계전서』 제13책, 1991, 200-201쪽)

II장에서 열거하였듯 홍익인간 실천전통은 지도층에서는 제도적으로 존립하였고, 민간에서는 홍익 습속으로 발흥되었다. 선인단군이 건국이후 계승한 홍익인간 이상은 하늘에서 내려준 수직적인 종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기에 수평적인 민중문화나 정치제도들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고대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었다. 건국사회에서 보이듯 홍익인간이념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목표이었고 그 선두에선 국조 선인단군의 정체성은 실천적인 인간상을 함의하고 있다.

오늘날 홍익인간이념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홍익인간 이념을 이해하고, 홍익의 가치를 행하고, 단위 속에서 홍익의 문화를 향유할 때 현시대에 홍익인간이념이 재활된다. 교육제도에서 선인단군이 상징하는 실천적 인간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선인단군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삶의 가치관을 홍익인간에 두고, 스스로 심신을 다스릴 수 있으며 각 단위에서 홍익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의 면모가 교육적 인간상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심신을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를 특정의 수련법으로 한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선인단군의 정체성이 비록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심신단련문화와 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련방법이라는 작은 범주로 한정된다면 무한한 방법론의 범위를 축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대 화랑도의 수양이나 제천문화의 사상, 홍익민속 등 과거의 전통을 참조한다면 오늘날 유용한 모티브를 다각적으로 발굴가능하다. 고유의 수양전통과 홍익인간 실천문화에 뿌리내려있는 ‘실천적 인간상’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홍익인간 이념이 개개인에게 기본정서로, 사회구성원 간에는 소통의 문화로,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적 가치관으로 부활하는 토양을 제공한다.

#### 4. 맺음말

홍익인간은 건국사회에서 환인·환웅 및 단군왕검의 행적을 함축하는 말이다. 환인·환웅·단군이 인간세상과 소통하는 기준은 홍익인간 재세이화였고 그 이념에 입각해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홍익인간의 이상은 실천할 때에 실현될 수 있고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인에게 홍익인간 이념은 공동체의 존립 준칙이면서 개개인에게는 삶의 원칙이었다. 한국인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어온 역

사가 있었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념은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를 비롯한 사서에서 단군왕검을 선인이라 기록하였다. 선인단군은 탄생과정부터 건국, 치세 이후 산신이 되어서까지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고 유지해 온 실천주체이다. 홍익실천의 전통은 II장에서 언급한 비와 같이 상고대에는 정치사상, 정치제도, 인재양성제도, 제천의례 등으로 홍익이념이 뚜렷하게 전승되었다. 후대로 올수록 외래사상문화에 밀려나긴 하지만 조선말 동학이나 근대 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홍익인간이념의 실천전통은 맥을 이어왔다.

홍익인간의 실천문화 전통은 건국사화에서와 같이 하늘·인간의 합일을 추구하고 현세참여적 성격을 내포한 한국의 신선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선인단군의 정체성은 유유자적, 현세이탈의 신선과는 달리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구현하는 실천적 인간상을 함의하고 있다. 오늘날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념은 제 방면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의 홍익인간이념이 현 시대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이념은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이기에 교육적 인간상의 정립에서 홍익인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인단군에 담긴 전통적 정서를 재인식하고 그에 담긴 실천적 인간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홍익인간이념과 선인단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가치관을 홍익인간에 두고, 스스로 심신을 다스릴 수 있으며 각 단위에서 홍익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교육제도에서 선인단군이 내포했던 실천적 인간상의 적용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서적으로 홍익인간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 그러한 기초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홍익인간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논의에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東國古代仙敎考」

강영경, 「한국 고대 산신신앙에 나타난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제7권, 종교문제연구소, 2001.

교육인적자원부,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제7차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1997.

권성아, 「21세기 통일한국인상과 흥익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제40권 5호, 한국교육학회, 2002.

\_\_\_\_\_, 「흥익인간의 이상에서 본 한국교육」, 『단군학연구』 제11호, 단군학회, 2004.

김성환,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제86집, 동아시아학술원, 2014.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동양철학연구』 제55집, 동양철학연구회, 2008.

김현우·이경원, 「민족종교에 나타난 한국정신문화의 원류」, 『한국철학논집』 제52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도광순, 「중국고대의 신선사상」, 『도교학연구』 제9권, 한국도교학회, 1992.

\_\_\_\_\_, 「한국사상과 신선사상」, 『도교학연구』 제7권, 한국도교학회, 1991.

박창언·박상욱, 「흥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민족사상』 제8권 3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4.

박창언·박상욱·유티팅·리광, 「흥익인간 교육이념 재해석을 위한 논점 탐색Ⅱ」, 『민족사상』 제9권 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북애자 저, 고희영 옮김, 『규원사화』, 한뿌리, 2005.

선우미정, 「교육이념인 ‘흥익인간’의 유교철학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제70집, 동양철학연구회, 2012.

세계역사문화연구소, 『한국사의 단군인식과 단군운동』,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안병로, 「단군한배검(檀君大皇祖)사상에서 드러난 나철의 수행관」, 『신종교연구』 제14집, 한국신종교학회, 2006.

오지환, 「퇴계의 선비관」, 『유학연구』 제34집, 유학연구소, 2016.

- 이강오, 『도교와 도교사상』, 범양사, 서울, 1987.
- \_\_\_\_\_, 「한국 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노장생」, 『도교와 한국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회, 1987.
- 이민홍, 「민족신화와 민족예악-국조단군을 중심하여」, 『인문과학』 제28집, 인문학연구원, 1998.
- 이승휴 저, 김경수 옮김, 『제왕운기』, 도서출판 역락, 1999.
- 이종은 옮김, 『해동전도록·청학집』, 보성문화사, 1986.
- 임승국 옮김,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2006.
- 임재해, 「홍익인간 이념의 역사적 지속과 민속문화의 전통」, 『고조선단군학』 제31호, 고조선단군학회, 2014.
- 임찬경, 「근대 독립운동과 역사연구 출발점으로서의 단군인식 검토」, 『선도문화』 제23호, 국학연구원, 2017.
- 임채우, 「선도사서 『규원사화』 해제-위작설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선도문화』 제6집, 국학연구원, 2009.
- 정영훈, 「한국인의 정체성과 홍익인간 이념」, 『단군학연구』 제6호, 단군학회, 2002.
- \_\_\_\_\_,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22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_\_\_\_\_, 「홍익인간사상과 한국문화」, 『민족학연구』 제8호, 한국민족학회, 2009.
- 조소앙,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양선생문집』 상, 1978.
- 최준식, 「이능화의 『조선도교사』」, 『한국도교문화의 위상』, 아세아문화사, 1993.
- 홍만중 저, 이석호 옮김, 『해동이적』, 을서문화사, 1986.
-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삼국사기:  
[http://db.history.go.kr/item/oldBookViewer.do?levelId=sg\\_017\\_0020&page=5](http://db.history.go.kr/item/oldBookViewer.do?levelId=sg_017_0020&page=5)
-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제왕운기 권하: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mujw\\_002\\_0060](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mujw_002_0060)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금석문검색:  
[http://portal.nrich.go.kr/kor/ksmaRemainUsrView.do?menuIdx=584&ksm\\_idx=3448&ssType=Y](http://portal.nrich.go.kr/kor/ksmaRemainUsrView.do?menuIdx=584&ksm_idx=3448&ssType=Y)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DB 『東國李相國全集』卷第三 [東明王篇]

## Abstract

### A Study on the Human Character of 'Hong-Ik-In-Ghan(弘益人間)' through Sunin Dangun(仙人檀君)'s Identity

Jin Kyu, Park\*

Dangun(檀君) was born in the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Sundo(仙道) which is the root of Korean traditional ideology, and he became a guardian spirit of a mountain in Asadal. The essence of his identity is 'Sunin Dangun(仙人檀君)'. The identity of Sunin Dangun contains the cultivation of self-discipline which is the concrete substance in Shinsun(神仙) ideology. It empowered Sunin Dangun to maintain the governing ideology of Hong-Ik-In-Ghan(弘益人間) as a leader, and was inherited to the leader class as a culture of practice like Hwarangdo(花郎道), to the politicians as a Hongik(弘益) system of converging opinions and to the ordinary people as Hongik(弘益) customs.

In the identity of Sunin Dangun, the ideology of "Hong-Ik-In-Ghan" is not hierarchical instructions given by a leader. Enjoying Hongik customs(弘益風俗) and systems, people made Hongik(弘益) ideology as a principle of community among people and as a principle of life for the individuals. Thus Hong-Ik-In-Ghan ideology has been changed into a practical one which is horizontal and autonomic being led by all people. It means that Hong-Ik-In-Ghan ideology hasn't just remained as a motto. It implicates a participatory human character who internalizes Hongik spirit and creates Hongik culture together through a series of practice culture, i.e. it indicates an active human character who realizes Hong-Ik-In-Ghan ideology. The educa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identity of Sunin Dangun.

【Key words】 Hongik Human(弘益人間), Korean Sundo(韓國仙道), Human character, Sunin Dangun(仙人檀君), Samkuk Yusa(三國遺事), Jewang Ungi(帝王韻紀)

---

\* Dangun Story Institute, Ph.D of Kukhak(Korean Studies)

\*\* 논문접수일: 2019. 10. 20. 논문심사기간: 2019. 10. 29. ~11. 11. 게재확정일: 2019. 11. 29.